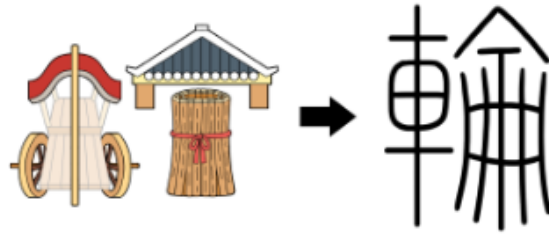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輪

바퀴 룬

輪자는 '바퀴'나 '구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輪자는 車(수레 차)자와 輪(둥글 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輪자는 죽간이 둥글게 말려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輪자는 이렇게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輪자에 車자를 결합해 수레의 둥근 바퀴를 뜻하게 된 글자이다. 수레바퀴는 둥글둥글하면서도 살이 달렸으니 輪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輪자는 단순히 '바퀴'라는 뜻 외에도 세상만사 돌고 도는 여러 이치를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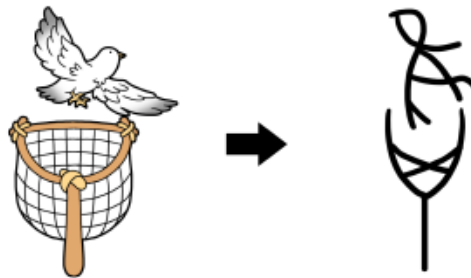
輪

소전

輪

해서

회의문자①



離

떠날 리:

離자는 '떠나다'나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離자는 离(흩어질 리)자와 隹(새 추)가 결합한 모습이다. 离자는 짐승의 발자국에 뗏을 그린 것으로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離자를 보면 그물 위쪽으로 한 마리의 새가 隹 그려져 있었다. 새가 그물 밖에 그려진 것은 새를 놓쳤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그물이 짐승을 잡는 뗏을 그린 离자로 바뀌었고 그물 위로 날아가던 새는 隹자가 되어 지금의 離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離자는 '새(隹)가 흩어지다(离)'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離

갑골문

離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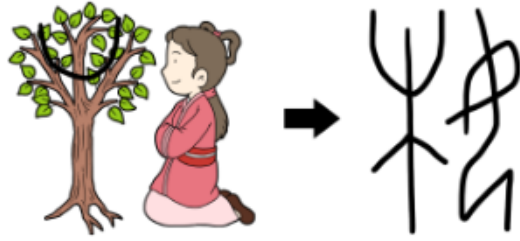
離

소전

離

해서

회의문자①



妹

누이 매

妹자는 '누이'를 뜻하는 글자이다. 사전에서는 '(손아래)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여동생을 말한다. 妹자는 女(여자 여)자와 未(아닐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未자는 '미숙하다(未熟)'라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니 妹자는 '어린 여동생'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꺄

갑골문

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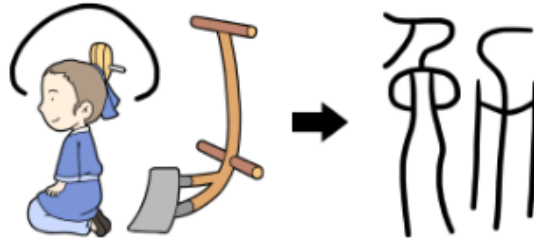
𡚸

소전

妹

해서

회의문자①



勉

힘쓸 면:

勉자는 '힘쓰다'나 '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勉자에서 말하는 '힘쓰다'나 '권하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도록 요구한다는 뜻이다. 勉자는 免(면할 면)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免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관리들이 쓰던 관모로 해석한다. 그러니 勉자는 관리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권유하다'나 '강요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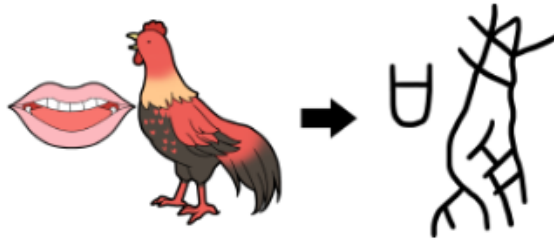
𡗗

소전

勉

해서

회의문자①



鳴

울 명

鳴자는 '울다'나 '(소리를)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한자를 이해하는 팁 중 하나는 글자 앞에 口(입 구)자가 있으면 대부분이 '소리'와 관련된 뜻이라는 점이다. 鳴자가 그러하다. 鳴자 역시 口자와 鳥(새 조)자가 결합한 것으로 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수탉이 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鳴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鳴자를 보면 口자와 함께 닭 벚이 강조된 수탉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수탉이 鳥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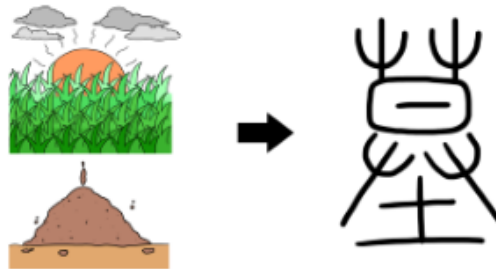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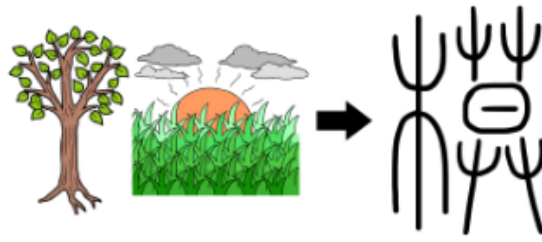
본뜰 모

墓자는 '무덤'이나 '묘지', '장사지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墓자는 土(흙 토)자와 莫(없을 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렇게 '없다'라는 뜻을 가진 莫자에 土(흙 토)자를 더한 墓자는 "땅에 묻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墓자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이나 '묘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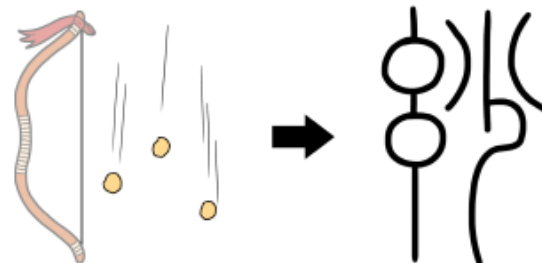
무덤 묘:

模자는 '형상'이나 '본뜨다', '본받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模자는 木(나무 목)자와 莫(없을 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模자는 나무를 깎아 만든 틀을 뜻하기 위한 글자였다. 模자가 '형상'이나 '본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같은 모양을 본뜨던 틀에서 유래한 것이다. 模자는 '법도'나 '양식'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는 정해진 규격에 맞춰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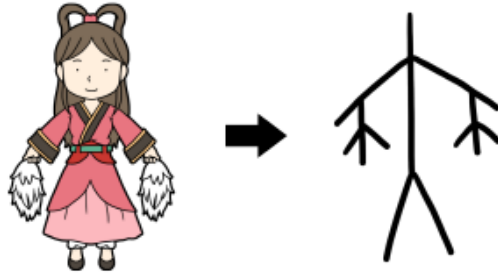
묘할 묘:

妙자는 '묘하다'나 '오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妙자는 女(여자 여)자와 少(적을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본래 '오묘하다'라는 뜻은 玄(검을 현)자가 들어간 𡵓(묘할 묘)자가 먼저 쓰였었다. 여기서 玄자는 활의 시위를 그린 것이다. 활은 시위를 당겼다 놓을 때마다 오묘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𡵓자는 여기에 착안해 '심오하다'나 '오묘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妙자가 '오묘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여자가 풍기는 오묘하고도 미묘한 느낌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舞

춤춤 무:

舞자는 '춤추다'나 '날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舞자는 상당히 복잡한 획으로 그려져 있지만, 갑골문에 나온 舞자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다. 갑골문에서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人(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희들이 춤을 출 때 사용했던 깃털 모양의 장식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깃털을 들고 춤을 추던 모습은 후에 無(없을 무)자가 되었는데,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拍

칠 박

拍자는 '(손뼉을)치다'나 '손으로 두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拍자는 手(손 수)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白자는 초의 불빛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백→박'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拍자는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로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참고로 음악에서는 拍자가 리듬을 뜻하는 '박자'나 국악기의 하나인 '박(拍)'을 뜻하기도 한다.



금문



소전



해서